



도내 문화예술계 종사자 대상 9월 11일 접수 마감, 10월 5일~11일까지 6박7일 일정 영국 미들랜드 지역 연수, 재단 연수비용 390만원중 240만원 지원

경기문화재단(이사장 김문수)은 해외 우수 문화예술기관을 둘러보고 국제적 안목과 역량을 키울 '2009 해외 문화예술 공간 탐방단'을 모집한다. 문화재단은 올해 연수 지역으로 영국의 미들랜드 지역을 선정, 오는 11일(금)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도내 공연장 관련 실무자, 예술단체 및 문화예술교육단체 관계자, 해당분야 전문 예술가 등이다. 접수문의는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http://www.ggcf.or.kr>)를 참조하고 팩스(031-236-0283)나 이메일(eduyang@ggcf.or.kr)로 신청하면 된다. 연수 기간은 오는 10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이며 개인별 연수비용은 390만원으로 이중 240만원을 경기문화재단이 지원한다.

연수경비는 워크숍, 공연관람료, 보험료 등이 포함된 금액이며 참가자들은 왕복 항공료 15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참가자들은 이번 연수기간 동안 버밍엄 플레이하우스, 리릭 해머스 미드, 로열 셰익스피어 컴퍼니 등 버밍엄·런던·리즈 지역의 문화예술기관을 방문, 다양한 교류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경기문화재단 관계자는 “영국은 문화예술기반시설과 지역사회가 긴밀하게 연계 발전해온 나라로 한국 문화예술정책의 많은 부분이 영국의 정책사례를 참고하고 있다”며 “영국 연수가 참가자들에게 새로운 자극과 문제인식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수정 기자 esnews@paran.com <http://www.esportsi.com>

일간연예스포츠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를 금합니다.